

## COVID-19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양책 및 건설시장 전망

2021.4.7 정책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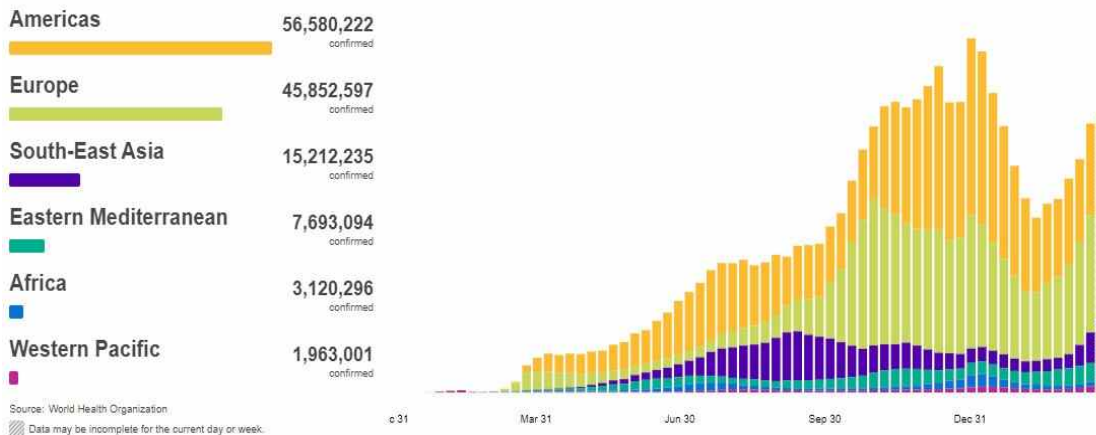
### □ COVID-19 동향 및 영향

#### ○ 주요 대륙별 또는 주요국 COVID-19 확산 추이

- '21년 4월 4일 기준, 전 세계 130,422,190명 확진, 2,842,135명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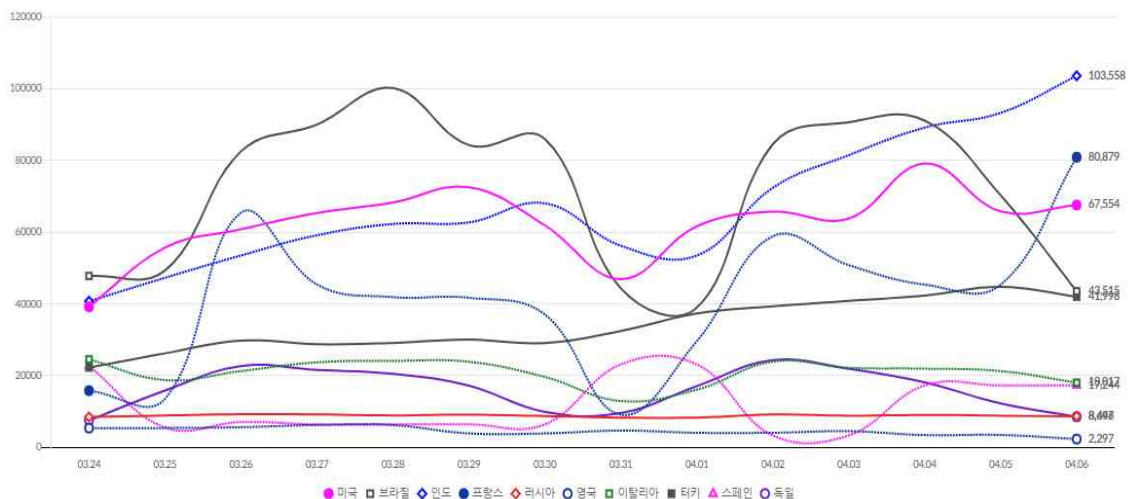
- 전 세계 COVID-19 확진자 발생 추이 -

Situation by WHO Region



\* 출처: WHO COVID-19 Dashboard

#### - 주요국 최근 2주간 COVID-19 확진자 발생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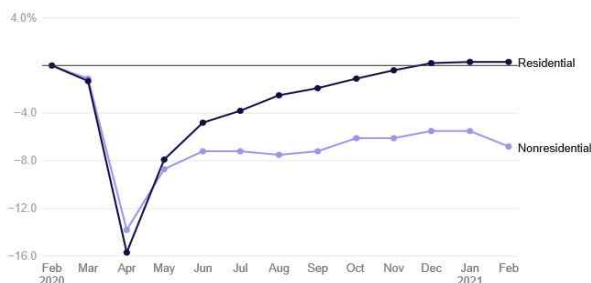


\*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홈페이지(<http://ncov.mohw.go.kr/>)

○ COVID-19에 따른 영향

- COVID-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'20년 2분기(3~6월) 동안 Lockdown 조치를 취하며 건설활동을 포함,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
- 건설현장의 중단·폐쇄, 추진 중 사업들의 보류 및 취소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건설고용이 급감함. 주택건설 시장은 사상 최저 모기지 금리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주거건물의 사용 증가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, 비주거부문 건설은 글로벌 공급망 중단, 유가폭락 등에 따른 투자 감소로 급격한 하락세

- 미국 건설분야 고용현황 -  
Construction employment



\* 출처: BLS(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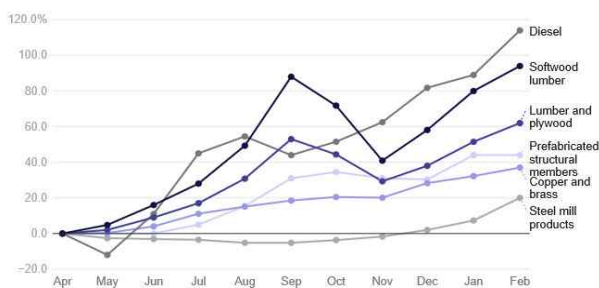
- 미국 건설시장 분야별 성장률 전망 -



\* 출처: IHS Markit(2021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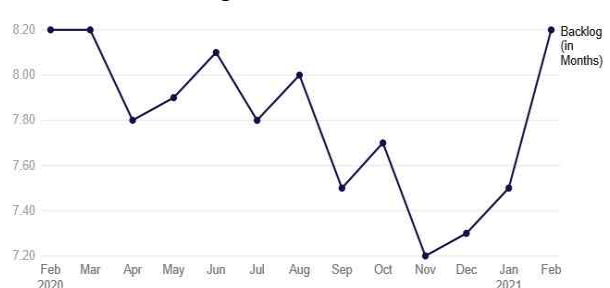
- 전 세계 주요국가 들은 국경을 차단, 인적·물적 이동을 제한했고, 공장 폐쇄 및 근로자 부족으로 생산공장 운영이 축소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한 대혼란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
- COVID-19 발생 이후 건설 수주잔고는 '20년 11월까지 감소, 백신 개발 성공 등에 따라 반등하여 '20년 12월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회복 중

- 원자재 가격 변화 -  
Material price changes



\* 출처: BLS(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)

- 미국 건설 수주잔고 -  
Construction backlog



\* 출처: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(ABC)

## □ 세계 건설시장 전망 및 경기 부양책

- (총괄) 최근 발표한 IHS Markit('21.4월)에 의하면,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4.1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대폭 증가(12.2%)한 12조 4,373억불로 전망

### - 세계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110,460	119,450	127,363	136,329	145,727	154,154
2021.1Q	110,855	124,373	132,092	140,590	149,340	157,293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(아시아)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5.0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15.8% 성장한 6조 3,782억불로 전망

### - 아시아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54,766	60,645	65,209	70,598	76,183	81,222
2021.1Q	55,090	63,782	68,755	74,230	79,817	84,859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주요 사업: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(베트남), 3개의 공항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(태국), 신수도 이전사업, 25개의 신공항사업(인도네시아),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용량(capacity)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 전망(싱가포르)

### 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베트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21~'25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약 174억불 지출</li> <li>· 약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사업 추진</li> <li>· 제조업 기지 지향, 관련 발전·도로·공단 및 물류단지 개발에 주력</li> </ul>
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주요 대규모 MRT 사업 단계적 발주 예정</li> <li>· 신규 MRT라인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해 약 680억불 규모 채권 발행</li> </ul>
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21년 건설사업 착공, '24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 이전 개시를 위한 신수도 이전사업에 약 400억불 이상 투입 계획</li> </ul>

인도	· 도로·항만·국방 프로젝트에 약 34억불을 추가로 지출하고, '21년 3월까지 주정부에 약 16억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
필리핀	· '20년에 추진이 지연된 'Build Build Build Program'을 재추진하여 '21년 경제성장 견인 계획 · '21년 인프라 사업 추진에 약 230억불 투자 예정

\* 출처: 각국 정부 홈페이지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 등

- (중동)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5.3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9.9% 성장한 5,275억 불로 전망

#### - 중동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						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4,512	4,721	5,078	5,397	5,732	6,126
2021.1Q	4,798	5,275	5,703	5,953	6,308	6,735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주요 사업 : 탈석유경제체계 추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33억불을 토목, 건축, 민생사업에 투입할 계획(사우디아라비아), North Field Expansion (가스전 사업)을 비롯해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,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(카타르),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(UAE)

#### 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사우디	· 약 420억불의 경기부양책 마련 · 서울시의 43배 규모의 '네옴 신도시' 건설 및 리야드 주택사업 등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재개 · 탈석유화 산업 구축을 위한 다수의 경기 부양 프로젝트 추진
UAE	· 약 340억불 의 경기부양책 마련 · 탈석유화 추진 및 태양에너지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· '21년 Capital Projets 예산, '20년 대비 46% 증가
카타르	·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206억불의 경기부양책 마련 · '20년 247억불의 프로젝트 예산 중 1/3 규모(총 82억불) 프로젝트 추진이 연기, '21년 이후 추진 재개 · 북부 가스전 확장 사업, 샤크 크로싱 교량 및 터널, 주요 도로, 상하수도 공사 추진
이라크	· 총연장 910km의 바그다드~바스라 연결 철도 건설, 바스라 태양광 발전소 등 교통, 전력분야 등 민생 관련 사안 우선추진 · 유가회복 이후 건설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가능하여 '22년 이후 활성화

\* 출처: Gulf Times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, 각국 정부 홈페이지 등

- (아프리카)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3.9%p. 감소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1.5% 성장한 1,108억불로 전망

- 아프리카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1,078	1,137	1,244	1,350	1,487	1,647
2021.1Q	1,091	1,108	1,194	1,264	1,374	1,513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주요 사업: 매년 30만호 주택 건설사업, 도로 사업(나이지리아), 향후 10년 동안 25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, 65개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 투자 예정(남아공), VISION 2030 관련한 LAPSSET(Lamu Port-South Sudan-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)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(케냐)

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0억 나이라(약 13억불) 규모의 코로나19 대응기금 마련</li> <li>• 2.3조 나이라(약 59억불)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• 국가경제지속가능계획(NERP) 하에 교통인프라 사업 우선 추진</li> </ul>
남아프리카 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 215억 랜드(약 12.4억불) 규모의 방역예산 책정하여 대응</li> <li>• GDP 10%에 해당하는 5천억 랜드(약 300억불) 규모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• 소득세 감면, 코로나19 지원금(총 30억불) 지급</li> <li>• 교통 및 에너지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 예정</li> </ul>
케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37억 실링(약 5억불)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•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전략 하에 약 18.5억불 규모 PPP 추진 계획</li> <li>•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압박 속 민자 유치, 차관조달을 통해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</li> </ul>

\* 출처: 각국 정부 홈페이지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, KIEP 세계경제포커스 등

- (중남미)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2.8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7.7% 성장한 4,599억불로 전망

## - 중남미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4,323	4,535	4,976	5,287	5,590	5,872
2021.1Q	4,270	4,599	5,049	5,417	5,750	6,050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**주요 사업:** 향후 5~6년간 60억불 규모의 철도망 프로젝트 투자(브라질)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보고타, 칼리, 메데인 등 6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(콜롬비아), 리마 국제 공항 확장사업(13억불) 및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(1억불)(페루)

### 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정부 긴축정책 실시</li> <li>· 신자유주의적 경기부양책 반대. 사회복지, 공적투자를 통한 위기 대응 추진</li> <li>·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(PNI)을 통해 국책 인프라 사업(마야철도, 도스보카스 정유공장, 산타루시아 국제공항 등) 지속 추진</li> </ul>
브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,500억 헤알(약 265억불)의 경기부양책 실시</li> <li>· '국가 에너지 계획 2050'에 따른 에너지원별 생산 전망 및 해결과제 제시</li> <li>·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위해 80억불 규모의 추경 예산 승인</li> <li>· '21년 전력 부문에 최대 37억불 투자 및 '50년까지 재생에너지 45% 목표</li> </ul>
페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265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, GDP의 약 12%까지 지출금액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</li> <li>· 10억 달러 규모의 100년 만기 국채 발행</li> <li>· 경제회복을 위해 메트로 3,4호선, 도로, 통신망 구축, 상하수도, 변전소 및 전력산업 등 인프라 사업 중점 추진</li> </ul>
아르헨티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</li> <li>· 주택공사, 학교수리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약 1천억 페소(약 11억불) 투입</li> <li>· 경기부양책과 동시에 세금 감세 및 인프라 지출 증대 정책 추진</li> </ul>

\* 출처: 각국 정부 홈페이지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, EMERiCs 등

- **(북미·태평양)**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3.2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6.9% 성장한 2조 898억불로 전망

## - 북미·태평양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<b>2020.4Q</b>	19,350	20,072	20,860	21,482	22,406	23,285
<b>2021.1Q</b>	19,548	20,898	21,086	21,779	22,711	23,408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**주요 사업:** 기존 도로, 교량,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데 2025년까지 1.5조불, 2040년까지 5.0조불이 소요(미국),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(캐나다)

### 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<b>미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4.8조불('20.3월 2조불, '20.12월 0.9조불, '21.3월 1.9조불)의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총 2조불의 자금 투자 (최대 4조불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 추진 중)</li> <li>기후변화 대응,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, 낙후된 인프라 시설 현대화 추진</li> </ul>
<b>캐나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약 57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(직접지원비, 납세 유예 및 면제 등)</li> <li>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 증세, '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</li> <li>3개년 녹색경제회복 전략을 위해 약 80억불의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, 저탄소 경제 실현, 광대역 통신망 건설,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등 추진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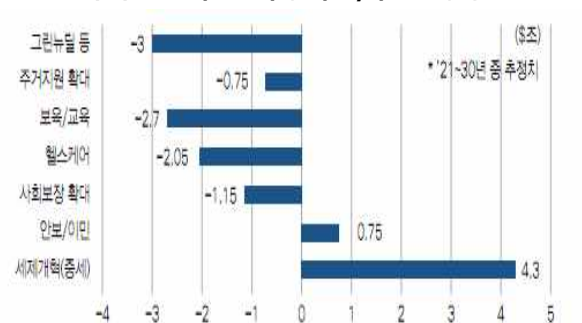
\* 출처: 각국 정부 홈페이지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, 한국은행, PwC 등

### - 바이든노믹스 주요 경제정책 -

환경, 인프라	4년간 \$2조 지출('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배출 제로, 인프라 현대화 등)
	탄소세 지지
	시추 목적의 연안, 연방토지 신규임대 금지
제조업 지원	Buy America(4년 간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, 서비스 조달 \$4,000억)
	신기술,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\$3,000억
사회보장 강화	최저임금 인상(시간당 \$15)
	건강보험에 공공요선 추가(오바마케어 개선)
	보육 및 노인 돌봄 강화에 \$7,750억 지출
세금	법인세 현행 21%→28%로 인상
	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.6% 재도입

\* 자료: 바이든 홈페이지, JP Morgan 등

### - 바이든노믹스 재정지출/수입 영향 -



\* 자료: CRFB

- (유럽) 2021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은 2020년 4/4분기 전망치 대비 3.0%p. 증가했으며,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10.2% 성장한 2조 8,711억불로 전망



- 유럽 건설시장 전망 -

(단위: 억불)

전망 시기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2020.4Q	26,431	28,341	29,996	32,214	34,327	36,001
2021.1Q	26,058	28,711	30,305	31,947	33,380	34,728

\* 출처: IHS Markit, 2021.1Q

- 주요 사업: Tri-City 우회도로 PPP사업 및 발트해 연안의 육상풍력발전소 (폴란드), 31억불 규모의 키예프 우회도로, 호텔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확장사업(우크라이나), 2030년까지 40여개 신규 병원 건립 사업 등(영국)

- 주요국 경기부양책

국가	주요 경기부양책 내용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7.5천억 유로의 COVID-19 경제회복기금 조성(5천억 무상, 2.5천억 저리 융자)</li> <li>· 녹색·디지털 정책으로 전환, '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 실현</li> <li>·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투자 확대, 재생에너지 확대</li> </ul>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약 4,455억 파운드(약 6,164억불)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·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373억불 규모의 투자 추진</li> <li>· '21년 내 인프라은행(Infrastructure Bank) 설립(약 166억불 규모)</li> <li>· 도로·철도·통신망·방재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</li> </ul>
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,300억 유로(약 1,527억불)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</li> <li>· 기후변화, 5G, 디지털 전환, 친환경 에너지 등이 경기부양책의 핵심</li> <li>·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, 수소경제 도입을 위한 R&amp;D 및 인프라 구축 추진</li> </ul>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녹색경제 전환(300억 유로), 산업경쟁력 제고(350억 유로), 실업청년교육 (350억 유로) 등 1,000억 유로(약 1,175억불)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'프랑스 경제 복구 계획' 실행</li> <li>·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및 법인세 감면 추진</li> </ul>

\* 출처: EU 및 각국 정부 홈페이지, 로이터,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자료, FKCCI, PwC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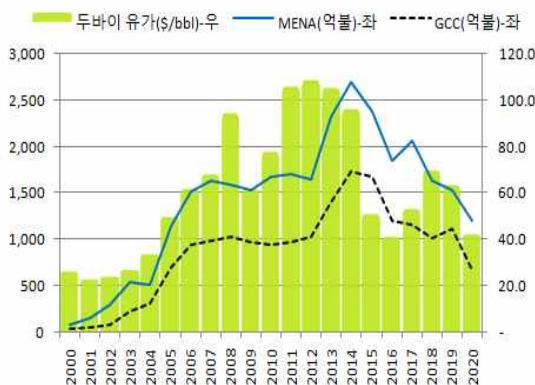


## □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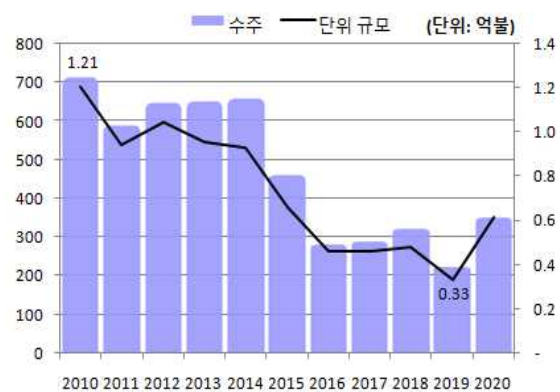
- (수주 진단) Meed Projects(4.7일 기준)에 의하면, 유가 급락에 따른 2020년 중동(MENA, Middle East & North Africa)지역 발주규모는 1,198.7억불로 전년(1,533.8억불) 대비 21.8% 감소했으나 해외건설 수주액은 이라크, 알제리\*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전년 대비 2.8배로 선방

\* 이라크 알포(Al Faw) 신항만 후속공사(약 26.3억불), 알제리 SONATRACH Hassi Messaoud 정유 프로젝트(약 16.6억불)

- 중동지역 발주규모 및 유가 추이 -



- 해외건설 수주 추이 -



- (경기 전망) 전반적인 경기 흐름 및 국제유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, 그린스완(Green Swan)\*에 대비 필요

\*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·금융위기(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존재하고, 앞서 발생한 금융위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)

- PwC(21')가 세계 5,05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(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)에 의하면,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76%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\*되고 있으며 IMF(4월 자료)도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금년 1월 자료보다 0.5%p 상향 조정한 6.0%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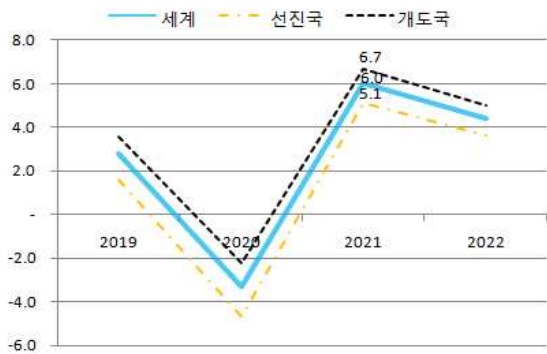
\* PWC 설문조사,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향상: 76%, 전년과 동일: 10%, 악화: 14%

- EIA(4월 자료)에 따르면, '21년 유가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및 OPEC+ 증산 가능성 등의 하방요인을 간과할 수 없으나 백신 공급과 경기 부양책에 의한 경기회복 및 소비반등 등의 상방요인이 우세해 전년(약 39.2\$)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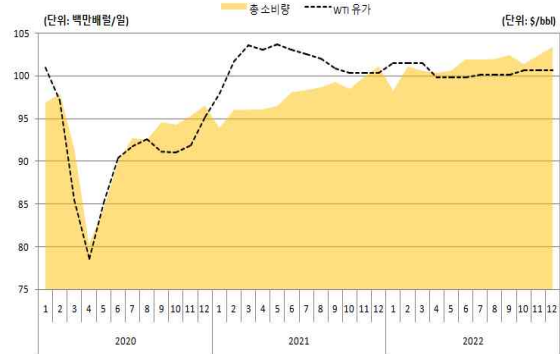
크게 증가한 58.9\$ 안팎 예상(美 EIA('21.4) WTI기준 / 배럴 당)

\* '21년 WTI 유가 전망치: 49.7\$/bbl('21.1월) → 58.9\$/bbl('21.4월)

-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-



- 세계 석유 소비 및 유가(WTI) 추이 -



- (검토 의견) EPC 동반 수주가 가능한 FEED 사업이 다수 성사됨에 따라 2021년에도 FEED 사업\*의 후속 EPC사업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\* 2019년 도스 보카스 정유공장 Pkg.2,3 FEED에 이어 2020년 EPC공사 수주로 연결, 2020년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(720만불) 및 사우디 PDH 플랜트(760만불) FEED 수주

- 산업설비 비중이 60%에 달하는 상황에서 석유수요 감소, 산유국 간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산유국 발주물량이 축소하여 대규모 산업설비 수주가 감소할 수 있어 도로·철도 등의 교통인프라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\* 부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\* E&Y(2021)에 의하면, 진행 및 계획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규모는 약 3,060억불 규모로 85%가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집중됨

- 한편,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·보건·복지 부문 등 지출확대로 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공자금융주선, 제안형 투자개발사업 및 G2G, PPP 사업 등 공략 필요